〔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21, No. 3 (1997) p. 621~631

조선시대 儒生服飾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성균관 학생복을 중심으로—

홍 나 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A Study of Changes in Scholar's Costume During Chosun Dynasty
— Centering on Sungkyunkwan Student's Uniform —

Na Young Ho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1997. 3. 18 접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Sungkyunkwan Students' uniform during Chosun dynasty through literature and paintings. Confucian scholar's costume of Chosun dynasty was said to imitate that of Chinese counterpart's. The first Confucian scholar's costume, which was officially instituded during King Taejong's reign, was a Yugon worn on the head and a Chongkeum (blue collar). But Chinese Gukjagam students' uniform in the early Ming years was a Nansam and later became a blue Wonryong which reflected the changes in the Ming period.

Though Chosun's Chongkeum was the official Confucian scholar's costume on record, it was not worn widely. Confucian scholars rather wore a red Jikryong or a white coat up to the mid-Chosun dynasty, and in the late Chosun period, a black Danryong or a red Danryong were more popular for Confucian scholars. Because the official Confucian scholar's uniform Chongkeum was not used widely and other costumes were worn more popularly, various attempts had been made to adopt the Nansam, like that of Ming's, as the official Costume scholar's uniform from King Sunjo to King Youngjo. Finally, King Youngjo decided to adopt the Nansam as the official costume for those who passed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ending the controversies concerning an official costume. We cannot find the Nansam and the Aengsam of the late Chosun period from the paintings either. This confirms that Aengsam was the costume which originated from the late Chosun period.

The term "Chongkeum" was used either to imply 'Confucian scholar' or to indicate various 'Confucian scholar's costume rather than its original meaning of blue collar.

I. 서 론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라는 차원에서 각종 조선시대의 의식을 재현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 중에는 왕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의식을 재현한 행사로 유생과 관련된 행사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의 대부분은 철저한 고증에 의한 행사라는 구호와는 달리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는 예산의 부족이란 이유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관련 복식의 세부적 규명이 미비한 증거라 하겠다.

유생의 복식에 대한 선행연구 가운데에는 몇몇 구체화될 내용과 재인용된 문헌의 誤記 및 원전을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문헌의 확인과 함께 유생복에 관한 논의가 즐어드는 영조 이후의 기록화를 참고로 하여 유생 중 성균관 학생의 복식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조선사회는 유학을 정치철학으로 삼았던 사회로서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 중 官立으로는 成均館, 四學이 있고 사립으로는 鄕校, 書院, 書堂이 있었다. 그 중 성균관은 생원 진사에 급제한 자와 권력자의 자제만이 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오늘날의 대학과 같은 위치였다.

성균관의 유생[1]들의 복식은 중국 국자감의 제도에 준하여 청금, 난삼, 복두, 복건을 착용하였으며, 이는 외래적 특수복식으로 일반 선비와 같은 복식을 하는 기타 교육기관의 유학생과 격을 달리 함으로써 관리 양성기관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 그 동안의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복식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하였다.

이에 시대에 따라 유생복이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대표적 복식으로 알려진 청금이 과연 어떠한 것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용되었고, 난삼과는 무엇이 다른 것인지, 과연 중국의 유생복과는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등의 몇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유생복과 우리나라의 유생복의 변천을 문헌을 중심으로 시대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중국 문헌의 유생 복식

중국의 유생복에 관한 자료는 문헌이 대부분이고 회화는 일반 사인복이 아닌 국자감생에 대한 것은 구할 수 없었다. 문헌기록을 보면 宋나라에서는 進士, 國子生, 州縣生이 襴衫을 입었다. 당시의 난삼은 白細布로 만들며, 圓領에 大袖이고, 아래에는 橫襴을 하여 裳을 했고, 허리에는 勞積(打褶)이 있었다고 한다[2]. 이 내용으로 보아 당시의 난삼은 철릭처럼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으며 깃이 둥근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난삼의 특징으로 알고 있는 襈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는 『三才圖會』에 기록된 깃 도련 수구 등에 검은 선이 둘러진 단령 형태의 난삼과도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또 다른 문헌에도 난삼은 袖頭가 없는 장삼인데, 위에는 원령, 또는 교령이며, 앞자락은 횡란으로서 上衣下裳의 옛 형체를 보여 주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 이에 송 때의 난삼은 깃의 형태나 장식 緣보다는 衫 아래 橫襴의 존재 여부가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난삼에 대해 알아 보면, 唐代에는 삼의 아랫단에 한 폭의 횡란을 덧댄 것을 난삼이라고 하였다. 횡란을 하지 않은 것은 直身 또는 直綴이라고 하였다. 한편 난삼은 유생만이 아니라 일반 남자 평상시의 복장이기도 하였다. 당나라때 이미 채용되어 송나라 때에 와서 가장 흥성하였던 의복으로, 그 유행이 광범위하여 벼슬아치의 한가히 있을 때나 늙어 귀향할 때 입었다. 하급 관리들까지도 모두 착용하였는데, 대부분이 細布로 흰 색깔이었고 허리 띠를 하였다고 한다[4].

흰빛은 원래 선비를 나타내는 뜻이 있었는지, 수·당 시대의 일반 사인으로 진사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자도 白袍를 위주로 입었다 한다[5]. 『玉海』에도 "품관은 녹포를 입고 거자(擧子, 과거를 보는 사람)는 白襴을 착용한다"고 있는데, 이것은 백난삼을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송대 사람들이 거자를 '頭烏身上白'이라 묘사했으며, 이는 머리는 검고 몸은 흰 쌀 벌레같다고 형용한 것이다[6]. 송나라 때 유생들은 관모로 사모나 다른 건 종류를 썼으며 그 양식은 자기가 좋아하는대로 하였고 신기한 것을 숭상하였다고 한다[7].

명나라에서는 洪武 3(1370)년에 사인들이 四方平頂巾을 쓰도록 하였다. 洪武 23(1390)년에는 유사 생원의 옷을 깃에서 치마까지 1치씩 땅에서 떨어지게 하였고, 소매 길이는 손보다 길어 되접었을 때 팔꿈치에서 3치 정도 떨어지는 거리로 하였다. 24년에는 士子의 巾服은 吏胥와 차이가 없으나 맡은 일에 따라 달리하게 하여, 工部에 명해 그 형식을 만들어 돌이도록 하였다. 태조

가 직접 보고 여러번 고쳐 정했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생원 난삼은 옥색 布絹으로 하며, 넓은 소매에 邑緣을 하고, 邑條·軟巾垂帶를 하였다. 貢擧入監者는 입던 옷이 변함 없었다. 홍무말에는 遮陽帽를 쓰게 했고 후에는 점차 개별적으로 사용했다. 洪熙 원년(1425) 중에 황제가 남색 옷을 입은 자는 어떤 자냐고 묻자 좌우에서 감생이 맞다고 하였다. 황제가 청의를 입는 것이 비교적 좋겠다고 하여 청원령으로 바꾸었다. 嘉靖 22(1543)년에는 예부에서 士子 冠服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漆雲巾 등이 있는데 이는 매우 예제에 어긋나는 것이라 하여 詔를 내려 금하게 했다. 萬歷 2(1574)년 거인 감생 유생 등의 忠靜冠 錦綺鑲履 傘蓋 煖耳 사용을 금하게 했고 위반하는 자는 五城御史에서 문책받았다[8]. 崇禎(1628~1644) 때 감생은 黑鄧絹에 연을 하지 않은 포를 입었고 유건을 썼으며, 유건과 오사모 모두 黑縐紗로 겉을 하고 漆藤紗나 麻로 緣을 했다는데, 견고하고 가벼웠다고 한다[9]. 명대의 擧人 등 선비는 斜領大襟寬袖袍를 입었는데 寬邊 直身이었다[10]. 사방 평정건은 職官 儒士의 便帽였고, 이 밖에도 包巾, 飄飄巾, 東坡巾 등 20여종의 건양식이 있는데 통칭 유건이라 하였다[11].

이렇게 중국의 국자감생의 복식은 송, 명 시대 모두 난삼이 제정되었지만 송대의 것이 백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명에서는 옥색 바탕이며, 넓은 소매에 검은 선(邑緣)을 두르고 머리에는 복건이라 생각되는 軟巾垂帶를 썼다. 여기에서 유생복식은 시대에 따라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명에서도 적어도 16세기 이전 부터 난삼보다는 청단령이나 흑색의 포, 斜領의 포 등을 착용하고 머리에는 유건을 쓰되, 그 건의 유형이 다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명제를 따르려한 조선조 유생복이 쉽게 정립되지 못한 하나의 원인 제공의 역할을 하였으리라 본다.

III. 조선시대 유생 복식의 변천

조선시대의 유생복식에 대해서 과거 복식사 연구의 초창기에는[12,13] 성균관 유생의 청금과 난삼을 같은 것으로 보았으나, 추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청금과 난삼을 동일시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14]. 청금은 직령의 포이며, 이 직령포가 영조조에 와서는 무가 없는 창의 형태에 흡수됐거나 발전되었다는 주장[15]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조선 후기의 기록화를 통한 연구에 의하면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들의 복식과 급제후 복식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응시자인 유생들은 유건이나 복건에 청금, 직령, 도포, 창의를 착용하였고 급제자들은 복두에 단령을 착용하여 문헌에 기록된 난삼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16]. 이에 조선조의 유생복을 시대순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선시대 이전의 학생복과 관련된 자료로는 992년에 국자감이 설치되었다는 것과 『高麗史』에 "대언 윤취가 성균시[17]를 맡아 세도가의 아직도 젖내도 가시지 않은 소년을 뽑았는데, 이를 당시에 '粉紅榜'이라 하였으니 소년들이 분홍옷을 즐겨 입기 때문이다"라는 기록이 있다. 이에 대해 『星湖僿說』에서는 초립과 분홍옷은 모두 연소자의 복장으로서 오랜 풍속이 되어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것이다[18]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 내용만으로는 '분홍방'이 꼭 색을 의미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학생복의 규모도 알기 어렵다.

이후 『高麗史』 輿服志 禑王 13년(1387) 6월에 명제에 준한 복식으로 高頂帽 平頂頭巾 絲帶로 유생복을 정한 것[19]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의 고정립은 明 洪武 3(1370)年에 제정한 사방평정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나, 사대는 술띠인지 혁대 띠인지조차 밝혀지지 않을뿐더러 『명사』와 『고려사』에도 모두 의복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한편 고려 공민왕이나 신라의 최치원의 초상화로 알려진 그림에서 난삼의 모습이 보이나 이 의복이 당시 이미 중국으로부터 도입되어 학생복으로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1. 청금의 제정과 시행 노력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 11년(1411) 1월에[20] 처음으로 京中에 있는 성균관과 오부 유생의 제복을 靑衿으로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靑莊館全書』(정조 19, 1795)에는 명의 국자감생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태종의 시령이 잘 시행되지 않았다[21]고 한다.

세종 10년에는 시향에 公服 또는 盛服을 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문공가례의 註를 예로 들며 청하는 내용이 있다. 여기에는[22] 진사의 성복이란 '복두 난삼 帶'라는 내용이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에 난삼을 진사의 공복으로 정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예조에서

先師를 배알하는 의주(儀註)를 지어 올린 내용에, 청금복 차림을 한 학생이란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23] 학생복으로 청금복을 입었음이 확인된다. 또 20년 2월에는 진사와 생원 모두 放榜에 흑단령을 입고, 유건을 쓰고 삼일유가하였다 하니[24] 당시에는 과거 급제시에도 난삼제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고 흑단령으로 대신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헌과는 달리 난삼제는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經國大典』에 제학생도복으로 '緇布巾(在學), 團領(儒學用 靑衿), 絛兒'가 기록되어 있다[25]. 생원 진사의 居齋시의 복식에 대하여는 문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급제자라 하더라도 거재시에는 타학생(下齋生)과 동일한 복식을 하였을 것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은 ① 학교 밖에서는 緇布巾을 쓰고 단령을 입고 絛兒를 띠되, 학내에서는 靑衿으로 갈아 입는 제도 ② 학내에서 치포건에 단령을 입는 제도이되 유학생(성균관 및 사학)은 司譯院의 학생과는 달리 구별하여 청금의 단령을 입는 제도의 2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어느 경우이던 청금의 형태가 단령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되며, 단령의 빛깔은 앞에서 살핀 세종 20년의 기록으로 보아 흑단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靑衿 卽 儒生, 秀才의 服", "學生 士子들은 靑襟"이라고도 하며 "靑衿 靑領也 學者之所"[26]라 하지만 실제로는 유생들이 유생복식을 잘 지켜 입지 않았다. 이는 속에 직령을 입고 그 위에 덧입어야 하므로 불편하게 여겼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리와 같아 보이는 것이 싫었던 것으로 보인다[27]. 중국에서도 홍무 24년 그 복식이 서리와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생복 착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청금 자체보다는 서리와 같아 보이는 것과 冠을 기피함에 있음을 알 수 있다[28]. 『경국대전』을 보면 서리도 평정건에 단령을 입고 조아를 띤다고 기록되어, 사실상 양자의 복식을 구별하기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 유생들이 학생복을 기피하여 그 제도가 헤이해지는[29] 것을 본다.

특히 성종 때에는 유생이 청금단령을 입지 않자 청금단령을 입도록 청하였고[30] 이에 유생들이 그 의복을 부끄러이 여기므로 노상에서는 립을 쓰고 청금을 입게 하자는 것을 볼 수 있다[31]. 이 글의 내용에서 만일 청금단령과 청금이 다른 의복이라고 보면 청금은 직령 깃의 포일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금은 단령의 안에 입는 밑받침 옷으로의 청색 직령일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청금단령과 청금을 같은 의복이라고 보면 청금은 둥근 깃의 단령이라는 결론이 나며, 일반적인 단령과 구별하기 위해 깃의 색을 다르게 하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양자가 다른 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하튼 이로써 성균관 내에서는 두건을 쓰고 청금을 입되 길에서는 착립을 허용하였다. 오늘날에는 단령에는 사모나 복두를 착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만, 笠에 단령을 착용하는 차림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명 홍무말년에도 유생에게 차양모를 쓰게 한 적이 있고(주 10 참조), 조선초에도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바 이현보(1467~1555)의 초상화에서 그 예가 발견된다[32].

2. 직령의 애용

한편 유생들이 철릭이나 직령을 입는 경우도 적지않았으며[33], 중종 이후로는 유생들이 성균관 밖에서는 직령을 입고 관안에서만 단령을 입는 것이 문제시되었다[34]. 이는 단령은 공식적 복장인데 비해 직령은 사적인 복장이었던 것이라 보이며, 점차 간편한 복장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 직령 착용의 이유가 아닐까 생각된다.

한편 당시 애용된 직령의 색은 홍색이었는데 그나마 점차 직령도 그 착용이 줄었고[35] 여기에 명종20년(을축, 1565)부터는 선비의 출입시 연달은 국상으로 홍의 직령이 아닌 백의를 착용하는 것이 습속이 되었다[36]. 그러나 '과거시에 大小場屋에 백의 입장을 금한다'고 되어 있어, 명조 이후 백의가 습속이 되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백의 입는 것을 허가하지는 않은 것 같다[37].

결국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 계속 성균관 유생의 복식으로 제정된 청금은 별로 애용되지 못하여 공적인 경우에나 일부 착용되고 그 외에는 일반 유생과 마찬가지로 홍직령과 다른 소색 포의 착용이 늘어났다고 본다.

3. 난삼제 시행을 위한 노력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과 사신의 왕래가 잦았다. 선조 7년 칠정관 조헌은 京師에서 돌아와 중국의 문물을 보고 그것을 실행해 볼 생각으로 올린 상소 중에 '우리나라의 이른바 청금은 중국의 것과는 크게 다른

데 그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청금을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38] 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생복식을 중국에 따르자는 논의가 활발하였다. 이 내용으로 청금이라고 지칭할만한 복식이 있었으되, 난삼의 형태와는 다른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후 유생 복식을 중국에 따르자는 논의에 따라, 선조 22년 8월에 난삼을 太學生服으로 제정하였다[39]. 그러나 난삼제를 새로 정한지 3년만에 임진왜란이 나서, 유생 복식은 난리로 인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유생이 유건과 럽을 섞어 착용하여 중국 사신의 웃음거리가 된 일이 있었다고 한다[40]. 이에 같은 왕(선조) 33년(1600)에는 유건으로 통일해 쓰기로 하였다[41]. 39년 2월에도 또 다시 중국의 사신이 올 즈음하여 청금의 색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禮를 아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색이 아닌 碧色으로 청금을 만들 수 있느냐'는 문제였다. 그러나 중국의 태학생도 벽색으로 청금을 만들었으니 이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하여 벽색으로 두었다[42]. 벽색은 청색 계열의 간색으로 청록색 혹은 흰빛이 도는 청색이란 뜻으로 해석되는데[43] 정확한 색을 알기는 어렵다. 만일 벽색이 청록에 가깝다면 이는 조선조 말 앵삼이 연두빛으로 사용되게 된 그 시원이라 할 것이며, 연한 푸른 빛으로 옥색에 가깝다면 『명사』에 기록된 옥색의 난삼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추후 문헌기록과 염료 염색 등을 종합한 한국 색채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 결과가 있은 후 재차 논의하여야 할 문제라고 본다.

한편 배인숙의 연구에 의하면 선조 때의 그림인 「謁聖試恩榮圖」[44]에 과거 장면에서의 문과 급제자는 흑단령 1명, 녹단령 11명이며, 머리에는 복두를 쓰되 어사화는 꽂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 그림을 확인할 수 없어 아쉽다.

유생복을 중국제에 따르자는 의견은 그 후에도 줄기차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국의 국자감생의 복식을 『명사』에서 다시 살펴보면, 홍무 3년에 정한 옥색의 난삼을 홍희(1425)년간에 청의, 청원령으로 바꾸었다. 즉, 선조 당시에는 이미 난삼은 청의, 청원령으로 바뀌어 중국에서는 유생복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도였다. 그럼에도 선조 7년 조헌은 '중국의 무학생은 유건에 흑단령을 입지만 그 외의 국자감생은 옥색에 청색선을 두른 난삼을 입었고 우리나라의 청금과는 크게 다르다'고 상소하였는데 과연 중국을 사신으로 방문했을 때 직접 관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광해군 1년에도 유생복을 중국의 제도로 의논해 시행하였다는[45] 기록이 보이나, 잘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왕 2년에 유생의 전복을 모두 중국제도로 하는 일을 세자 입학 때에 마칠 수 있도록 거행하라는 명이 다시 내려지지만[46] 백관복보다 먼저 유생의 옷을 바꾸는 것은 일의 경중과 선후가 없는 일이라 하여 이전대로 하였다[47]. 그런데 광해군 1년에 고쳤었다는 유생복에 대해 실록에 '남색 紬로 옷을 만들고 청색 주로 緣을 만들게 하고, 紗로 싸서 건을 만드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청색은 남색보다 짙은 색상으로 흑색에 가깝게 진해지다보니 흑색과 혼용되거나 동일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48]으로 보아 이 옷은 푸른 계통의 옷에 검은 빛의 깃이 달린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옥색에 검은 선을 둘렀다는 명시대의 난삼이나 조선 말의 앵삼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것만으로는 색채 외에 의복의 형태에 대해서 단언하기 어렵다.

그 후 광해군 13년 3월 18일(경신)에 성균관에서 아뢴 글 중에 조사가 문묘 사당를 참배할 때에 이르면 장보(章甫)를 쓴 유생들이 청금으로 옷차림을 갖추고…… 란 구절이 있어[49], 어느새 장보관에 청금이 유생복으로 사용된 적도 있음을 본다.

현종대에도 왕세자의 성균관 입학을 앞두고 閔鼎重이 유생복 일체를 중국의 난삼제도로 바꾸자 하였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50]. 현종 말년에는 權尙夏가 태학에 재임되면서, 중국제도를 따라 粉布 靑衿 및 복두로써 유생의 복을 정하였으나 이 역시도 중국의 天子의 서거로 중지되었다.

현종 때의 유생복식을 알 수 있는 자료 중에는 「北塞宣恩圖」가 있다[51]. 이 그림은 현종 5년(1644) 길주에서 시행된 함경남북도별설 文武科都會試의 광경을 韓時覺이 그린 일종의 보고용 기록물이다[52]. 이 회화에는 8월 20일에 거행된 문무과의 시취장면과 9월에 거행된 放榜장면이 섬세히 묘사되어 있다.

그 중에는 난삼은 보이지 않고 흑색의 유건에 홍색의 직령포를 입거나[53] 복두에 흑단령을 입은 인물, 청단령을 입은 인물 등만이 나타난다. 이는 난삼제의 시행이 쉽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준다. 급제자가 아닌 유생들은 유건에 홍색의 직령을 착용하거나, 청색의 직령을 입고 있다.

[그림 1] 단령을 입은 급제자
출처 : 「북새선은도」

[그림 2] 홍직령을 입은 유생
출처 : 「북새선은도」

영조대에는 유생복에 청금을 착용하자는 대한 논의가 더 활발해졌다. 그런데 9년 趙明翼의 상소[54]와 그에 따른 수차의 논의[55] 등의 내용을 보면, 정해진 기일내에 중국제도에 맞춰 새 제도를 시행하기에 기일이 급박하여 개선하지 못한 것과[56] 현종 때에 만들기로 한 분포청금, 복두로 거재의복을 삼고 급제자도 그 예를 따르되 어사화를 꽂게 하자는 의견으로 보아 이러한 제도들이 아직도 시행되지 못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때까지 관학(館學) 유생이 거재[57]할 때와 부거(赴擧)[58]할 때 모두 홍단령을 입어 왔음을 알 수 있다[59]. 그러나 이를 유생들이 불편히 여겨 번번이 『詩經』의 "靑靑子衿"이란 구절을 인용하면서 청의 입기를 원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고치지 못하고, 유생의 복색은 그전대로 홍단령을 쓰게 명하였다[60]. 여기에서 홍단령이 언제부터 유생복으로 쓰였는지 의문이나 적어도 광해군 이전(주 47 참조)부터 사용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실록의 내용에서 첫째 유생복이 한가지가 아니고, 청금이라는 용어는 계속 유생복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청금의 모습이 계속 하나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용도에 따라서도 홍색과 푸른 색의 유생복을 함께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둘째 청색이 더 중한 곳에 쓰이고 붉은 색이 더 가벼운 경우에 사용되었으며, 영조 당시 과거 급제시에는 복두에 흑 또는 청단령을 입고 이것이 청금의 역할을 하지만 평시에는 성균관내에서는 홍단령을 입고, 성균관 밖에서는 홍직령을 즐겨 입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경국대전』에 기록된 청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고 이에 중국의 제도를 따른 난삼제를 새로 정하여 급제자가 입는 방방시의 복식으로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난삼제의 시행 이후의 유생복식

영조 22년에는 전에 여러차례 시행하고자 했던 난삼제로서 생원, 진사, 唱榜服으로 법제화하였다. 이는 안동 향교에 있는 난삼을 기준으로 삼았다[61]. 이후 영조는 성균관 육일각에 1건을 만들어 보관하므로 기준을 삼고 그림을 그려 팔도에 보냄으로 전국에 보급시켰다. 임금이 '난삼의 제도는 高황제(명나라 태조)의 유제인데 唐畵에 그려진 것이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한다[62].

한편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의 「謁聖科擧圖」는 영조 때의 그림으로 유생들이 과거장에 들어가기전 3사 관원들이 일일이 호명하며 조사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63]. 과거장의 유생복을 살펴보면 황토색의 유건을 쓰고 있는데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잘못 그려진 것 같다. 옷은 넓은 소매에 직령 깃이고 길이는 종아리 정도이다. 색은 청색이 18명이고 백색이 22명으로 옷의 형태에서 무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밑단에 선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여기에 사대를 하고 행전을 하였다[64]. 그러나 이 그림에는 방방시의 모습이 없고, 등장하는 인물이 성균관의 유생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반 선비복으로 이해할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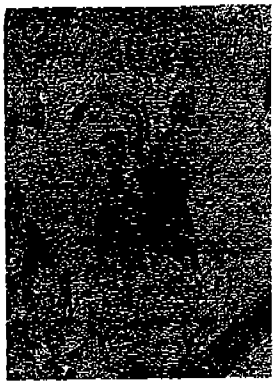
「正祖大王陵幸圖」는 정조19(1795)년에 혜경궁 홍씨 1주갑을 맞아 사도세자의 묘소를 참예한 후 화성행궁에서 알성시와 방방연을 베풀고 돌아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그 중 알성도에는 「整理儀軌」[65]와 비교하면 훨씬 많은 인원이 그려져 있다. 그림에 나타난 복식을 정리하면, 유생들은 유건에 흰색이나 청색의 직령포를 입고 있다. 길거리에 보이는 유생들은 백색이나 청색의 도포

나 창의를 입고 행전을 하고 있다. 반면, 방방도의 급제자들은 문무과 모두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녹색 단령에 각대와 목화를 착용하였다.

단원의 「평생도」 1면 三日遊街에도 과거급제자(그림 3)가 녹단령에 복두를 쓰고 어사화를 꽂고 있다[66]. 따라서 영조대 이후로는 방방시에 녹색 단령과 어사화를 꽂는 제도가 정착되어 이것이 국말의 앵삼제로 이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鶯衫은 襴衫의 일종으로, 과거에 급제하면 이를 입고 襆頭에 어사화를 꽂고 三日遊街를 했다. 단국대학교 민속박물관[67]과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국말의 유물이 있으며, 고려대 소장의 유물을 보면 겉은 연한 연두색, 안은 노란색으로 지은 겹袍로 겉과 안이 겹쳐 꾀꼬리(鶯)와 같은 색조를 보인다. 여기 깃과 앞자락, 도련, 무의 이음 부분, 수구 등에 검은 紗로 폭넓은 襈을 둘러 색채대비가 강렬하다. 깃은 團領이며 흰색 亢羅 동정이 있다. 특이한 것은 무가 앞자락에만 있는 것이다. 즉 앞길에 단 무를 뒤로 젖혀, 뒤에서 볼 때 앞길에 연결된 무에 두른 검은색 선이 드러날 뿐이고, 그 밑에 있어야 할 뒷길에는 무가 없다. 선은 안에 감을 대고, 겉으로 넘겨 감쳤다[68].

그 밖에 성균관의 유생을 그린 그림으로는 순조 때 문조세자의 성균관 입학례를 그린 「王世子出宮圖」[69]가 있다. 『國朝五禮儀』에는 왕세자 입학시 작헌례 때 학생은 靑衿服을 입는다고[70]로 기록되어 있다. 실록에는 영조 18년 왕세자 입학시 왕세자는 쌍동계 공정책, 곤룡포를 갖추고 태학에 나아가 이어 학생복으로 바꿔 입었는데, 청금과 연두건, 세조대를 갖추고 작헌례를 행하였다고 한다[71]. 같은 해 4월에도 임금이 태학에 나아가 작헌례를 행할 때 유생은 청금복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다[72]. 정조대에 편찬된 『태학지』에서는 왕세자가 유생복인 '軟巾·靑紗後垂靑衿服에 細條帶, 勒帛, 黑靴(상의원 진배)'를 착용하고, 생원·진사는 '軟巾·後垂靑衫袍, 黑靴子'를 착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73]. 「왕세자출궁도」의 서문에는 왕세자가 성균관에 이르면 廟司는 흑단령, 儒生은 청금복으로서 왕세자를 맞이한다는 설명이 있다.

여기에서 청금이 아닌 '청삼', '후수 청삼포'라는 다양한 명칭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같은 의복인지 의문시된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난삼 형태의 포는 보이지 않고 도포 모양의 포만 보이므로(그림 4), 이것이 청금포 혹은 청삼포를 지칭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태학



[그림 3] 녹단령을 입은 급제자
출처 : 「평생도」(단원)

[그림 4] 도포를 입은 유생
출처 : 「왕세자 출궁도」

[그림 5] 직령을 입은 유생
출처 : 「왕세자 출궁도」

지』의 왕세자의 後垂 青衿服과 생원·진사의 後垂 青衫袍에서 말하는 '후수(後垂)'란 도포의 뒷자락이 내려온 모양을 지칭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밖에 직령포[74]를 입은 인물이 다양하게 보이는데, 행사 참여 인물 중에 직령 착용자는 작헌례에서 평정건에 홍직령(그림 5), 왕복의에서 유건에 분홍빛을 띤 직령, 입학의에서 평정건에 갈색빛을 띤 직령이 보이며[75] 이들은 행사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익도 난삼보다는 유건에 청삼이 유생에게 보다 합당한 의복이라고 여겼던 것을 『星湖僿說』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76].

즉 유생복은 유건에 홍직령과 청직령을 착용하다가 점점 후대로 올수록 도포와 창의를 착용하고, 급제자의 복은 복두에 어사화를 꽂고 흑색의 단령이나 녹색, 홍색의 단령을 착용하다가 후대로 올수록 복두에 녹단령을 착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홍단령은 문관 급제자들에게는 착용되지 않고 무관급제자들에게만 착용되었다[77].

V. 결 론

조선의 성균관 유생의 복식은 태조 때 처음 청금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중국의 제도를 따른 것이지만 중국의 국자감생의 복식도 시대에 따라 변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明初에는 옥색 바탕이며, 넓은 소매에 검은 선(皂緣)을 두르고 머리에는 복건이라 생각되는 軟巾垂帶를 썼다. 적어도 16세기 이전부터 난삼보다는 청단령이나 흑색의 포, 斜領의 포로 바뀌어 갔고, 머리에는 유건을 쓰되, 그 건의 유형도 다양하였다. 이 때문에 명의 제도를 따르려 한 조선조 유생복은 쉽게 정립되지 못하고 여러차례 논의에만 그치는 결과가 되었으리라 본다.

성균관 유생의 복식은 『경국대전』에 의하면 유건에 흑단령(청금)이었으며, 주로 京中의 성균관, 사부유학생에 한하였다. 그러나 청금단령으로 불리우기도 하였던 청금은 서리복과 비슷하여 유생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대신 홍색이나 소색의 직령이나 홍단령 등이 착용되었다. 한편 문헌에 의하면 청금이라고 지칭할만한 복식은 있었으되, 중국의 난삼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후 유생 복식을 중국 제도에 따르자는 논의에 따라, 난삼을 太學生服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선조 22년부터 영조 때까지 지속되었다. 하지만 실록의 내용에서 유생들이 용도에 따라 홍단령과 푸른 색의 유생복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청색이 더 중한 곳에 쓰이고 붉은 색이 더 가벼운 경우에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국대전』에 기록된 청금의 형태에 대해서는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금이라는 용어는 계속 유생복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청금의 모습이 계속 한가지로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조선 중·후기에 있어 중요한 행사에는 흑단령을 입어 이것이 청금의 역할을 하지만 평시에는 홍단령을 입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난삼제를 새로 정하여 급제자가 입는 방방시의 복식으로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화를 통해 살펴본 결과 문헌만을 통한 연구에서 부족하였던 점을 다소 보충하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종부터 순조 때까지 성균관의 유생복으로 난삼이 착용된 예를 찾을 수 없었다. 흑, 홍, 녹 단령이나 홍, 청직령, 도포 등의 형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성균관 유생의 복식이나 방방시의 복식이 모두 문헌대로 실행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앵삼이나 난삼의 제도는 거의 조선말에 와서야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후기에는 포제의 발달에 따라 평시에는 다양한 포 종류가, 방방시에는 복두와 단령이 성균관 유생들에게 입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도 유물이나 회화, 실증적인 기타 자료들을 통해 전통 색채나 중국의 난삼제도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져 유생복식에 대한 많은 부분이 더욱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라며, 본 연구에서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성과를 기대한다.

미주 및 참고문헌

1) 성균관은 정원이 200명이고 지나와 생원으로 부족할 때에는 사학의 학생으로 정원을 채우게 되어 있다.
2) 『宋史』 輿服志.
3) 華 梅, 『中國服裝史』, 天津 : 人民美術出版社, 53, 1989.
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 丹青, 277, 1983.
5) 華 梅, 『中國服裝史』, 天津 : 人民美術出版社, 35, 1989.
6) 周錫保, 전게서, 277.
7) 華 梅, 전게서, 53.

8) 『明史』, 卷67, 志 第43 『文淵閣四庫全書』, 298-88.
儒士生員監生巾服 洪武三年令 士人戴四方平頂巾 二十三年定 儒士生員 衣自領至裳去地一寸 袖長過袖復回不及肘三寸 二十四年以士子巾服無異吏胥 宜?別之命工部制式以進 太祖親視凡三易乃定 生員襴衫用玉色布絹爲之 寬袖皂緣皂絛(帶?)軟巾垂帶 貢擧入監子不變所服 洪武末年許戴遮陽帽 後遂私戴之 洪熙中帝問衣藍子何人左右以監生對帝曰 著青衣較好乃易青圓領 嘉靖二十二年禮部言 士子冠服詭異有凌雲等巾蓋?禮制詔所司禁之 萬歷二年 禁擧人監生生儒僭用忠靜冠巾錦綺纏履及張繖蓋戴溫耳 違者五城御史送問.

9) 周錫保, 전게서, 400.

10) 華 梅, 전게서, 69.

11) 앞 글, 69.

12)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 이대출판부, 374, 1975.

13) 金東旭, 『增補 韓國服飾史 硏究』, 서울 : 亞細亞文化史, 161, 1973.

14) 이순자, 『襴衫의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미간행), vii, 1979.

15) 柳永淳, 『朝鮮朝의 儒生服에 관한 硏究』,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 1981.

16) 배인숙, 『謁聖圖와 放榜圖에 나타난 儒生服飾』,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 1988.

17) 國子監試인데 합격자는 국자감에 들어가 공부할 자격이나 또 하급관리에 등용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18) 『星湖僿說』, 卷之八, 人事門.

19) 『高麗史』 第26與服志 禑王 13年 6月.

20) 『太宗實錄』, 卷42 世宗10年 11월 16일 『국역 태종공정대왕실록』, 387.
成宗 8年 乙酉에 같은 내용이 기록.

21) 李德懋, 『靑莊館全書』, 文獻指掌編.

22) 『世宗實錄』 卷42 世宗10年 11월 16일 『국역 세종장헌대왕 실록』, 325.

23) 『세종 장헌대왕 실록』 제63권, 『국역 세종장헌대왕 실록』 10권 125.
"어가가 관에 이르려고 하면…… 관관(성균관 관원)과 학관(사학의 관원)이 학생을 인솔하고 길 왼편에서 봉영한다. …… 통례문이 시복 차림을 한 문무 군신과 관관, 학관, 청금복 차림을 한 학생을 나누어 인도하여……"

24) 『世宗實錄』, 世宗 20年 2月 乙丑.

25) 『經國大典』, 서울 : 일지사, 217~220, 1474.

26) 鄭東愈, 『書永編』.

27) 『中宗實錄』 11年 5月 8日 戊子, 국역 13권 12
"학교를 진흥하는 일은 마땅히 고무 짐작하여야 하나, 사장도 가려야 한다. 근래 이 풍이 문란해 길에 책을 끼고 다니는 선비가 없고 또 청금을 입은 사람이 없어 그 의복이 여느 사람들과 같으며, 또 살찐 말을 타고 輕裘를 입기까지 하여 배우는 것은 사치한 버릇이니 이러한 일을 헌부는 糾擧하여야 한다. 하매 용개가 아뢰기를 …… 중국 유생은 길을 다닐 때도 두건을 쓰는데, 우리나라의 시습은 한결같이 경박해졌으니, 중국의 例에 따라 길에서도 두건을 쓰되 어기는 자는 儒類에 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또 유생은 다들 단령을 안 입고 다니는데 이는 서리와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이나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생과 여느 사람은 구별되어야 하니 길을 다닐 때에 쓰는 유관은 중국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청금은 입어야 한다 하였다."

28) 앞 글.

29) 유희경, 전게서, 375.

30) 『成宗實錄』, 第85卷, 8年 10月 29日 癸亥, 『국역 성종강정대왕 실록』, 242.
예조에서 전지하기를 "금후로는 성균관·사학 유생은 서울의 길거리에서는 청금단령을 착용하도록 하라".

31) 『成宗實錄』, 第86卷, 8年(1477) 十一月 甲子, 『국역 성종강정대왕 실록』, 244.
지금 유생으로 하여금 다른 복식을 입게 한다면 성균관에 거할 자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자 임금은 유생이 유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성인의 도를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 하면서 만일 유생들로 하여금 그 복식을 다르게 하고자 한다면 장차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고 묻자 지사 이극배가 유생이 길거리에서 갓을 쓰고서 청금을 입는 것이 어떠하겠느냐고 제의하고 왕이 이에 좋다고 응하는 기록이 있다.

32) 조선미, 『한국의 초상화』, 서울 : 열화당, 285-6, 그림 116, 1983.

33) 『中宗實錄』, 中宗 13年 1月 戊午, 국역 16권 137.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朝士의 경우 반드시 모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릭은 호복에 "의관을 정제한다는 것은 朝士의 경우 반드시 모대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철릭은 호복에 가까우니 그것을 입고 글을 보아서는 안되고 직령 같은 것은 곧 심의이니 그것을 입고 글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34) 『中宗實錄』, 中宗 23年 10月 28日 丙寅, 국역 32권 189.
"부독이 館中에서 圓點(유생의 출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조석으로 적게 하는 작은 동그라미) 해야 할 생원·진사는 다들 직령을 입고 말을 타고서 반궁(泮宮)(성균관의 별칭)까지 들어와 두건을 찾아 쓰고 단령으로 갈아 입는데 이것은 예전에 없던 폐습입니다."

『中宗實錄』, 中宗 11年 5月 25日 乙巳, 국역 13권 79.
청금을 입거나 유건을 쓰는 것으로 말하면 다 말단의 일이니 어찌 이것으로 士習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학교에서 더 충후하고 순박한 자를 뽑아서 쓰면 아마도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35) 南晩星, 『芝峯類說』 上, 서울 : 을유문화사, 121-122, 1975.
"평시에 유생의 기마는 금지하였다. 그런 까닭에 유생은 짚신을 신고 도보로 다녔으나 지금은 유생이 목긴 가죽신을 신고 말을 타고 다니는 것이 朝官의 모양과 꼭 같으며 도보로 걸어 다니는 자는 아주 없어졌다. 또 평시에 비록 年長한 자일지라고 행전을 치고 직령의를 입었는데 지금은 나이 젊은 자들도 다 도포를 입고 행전을 벗어버린 채 分套를 신는다. 비록 자제들이 어른에게 뵐 때에라도 또한 그러한 차림을 한다. 풍습을 이루어 그러한 것이 떳떳한 것으로 되었으니 시속의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략)…… 사인으로서 관직이 없는 자도 나들이 할 때는 홍의직령을 입었으니 내가 어릴 때에 목도하였다. 그러던 것이 대체로 嘉靖 을축년 이후 여러 번의 국상을 당하여 계속해서 흰 옷을 입는 것이 드디어 풍속을 이루어서 지금은 붉은 홍직령을 입는 이는 전연 없다."

36) 『燃藜室記述別輯』.

37) 『受敎輯錄』 卷3 科擧條.

38) 『선조수정실록』, 7년 11월, 국역 1권 222.
『燃藜室記述別輯』, 『增補文獻備考』 80禮考, 『磻溪隨錄』 4冊.
"유건의 이름은 민자건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모양이 民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 제도는 대를 엮어 치포로 싸기도 하고 종이에 풀을 발라 만든 뒤에 옻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쓰고서 안개나 빗속에서도 그냥 다니는데 우리나라의 士巾처럼 이슬만 맞아도 처지는 것과 다릅니다…… 국자감에 있는 거인이나 서정에 참례하는 武學生은 모두 유건과 흑단령을 착용하고 기타 학생은 中外가 모두 난삼을 입는데, 대체로 옥색에다 청견으로 선을 둘렀으며 선의 너비는 2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청금은 이와는 크게 다른데 그 제도를 제대로 따르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청금을 시행하지 않는 거만 못합니다."

39) 李裕元, 『林下筆記』, 卷22, 서울 : 대동문화연구회(영인본), 563-64, 1961.

40) 유희경, 전게서, 375.

41) 李睟光, 『芝峯類說』. 卷3, 君道部, 法禁, 上, 서울 : 을유문화사, 121-22.
직령 아닌 도포 입고 다님을 지적.

42) 『宣祖實錄』, 卷196, 宣祖 39年 2月, 辛亥.

43)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8卷, 東京 : 大修館書店, 378, 1984.

44) 宮琦市定, "宣祖時代の科擧恩榮宴圖について," 『朝鮮學報』, 第29輯 日本 : 朝鮮學會, 2-5, 1963.
배인숙, 전게서, 5 재인용.

45) 『光海君日記』, 2年 閏 3月 2日, 국역 5권 91.

46) 『光海君日記』, 2年 閏 3月 7日 壬子, 국역 5권 96.

47) 『光海君日記』 卷14, 光海君 2年 閏 3月 10日 乙卯, 국역 5권 99.
예조에서는 "유생의 전복은 언제나 중국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왔는데 이제 만일 중국의 제도를 따른다면 이는 매우 좋은 일이나, 지금의 선비들은 너무나 가난해서 목면 홍단령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원점(圓點)을 받으며 성균관에 있을 때에도 평상복을 입습니다. 이제 남색 명주로 옷을 만들고 청색 명주로 연을 만들게 하고, 깁(紗)으로 싸서 건을 만드는 것은 그 비용이 매우 많이 들어 용이하게 준비하지 못할 듯 합니다."라고 하였다.

48) 이은주, "한국전통복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1호, 124, 1994. 2.

49) 『光海君日記』 13年 3月 18日 庚申, 국역 23권 193.

50) 『增補文獻備考』, 下卷208, 421.

51) 이외에 국립중앙박물관에는 「八關宣恩圖」, 「北關別科圖」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그림이 전한다.

52) 『春官通考』, 卷71, 喜賜科制.

53) 배인숙, 전게서, 14.

54) 『英祖實錄』, 卷34, 9年 5月 戊申.
대사성 조명익이 상소하여 ……(중략)…… 유생의 의복제도를 청했는데, 유생이 분포(紛布) 청금, 복두로써 거재의복을 삼고, 새로 생원이나 진사과의 급제자도 그 예를 따르게 하되 한 떨기 연꽃으로 복두 뒤에 꽂아 붙이고, 생원 진사 모두 합격자에게는 두 가지를 붙여서 구별하다가 3일이 지난 후에 꽃을 떼버리게 하는데 이것은 중국의 제도를 따른 것입니다.

55) 『英祖實錄』, 卷34, 9年 9月 乙巳.
『英祖實錄』, 卷34, 9年 10月 丙辰.

56) 『英祖實錄』 第38卷 10年 4月 20日 乙丑, 국역 3권 26.
생원 진사 유생의 관복제도에 대하여 여러 유신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니 교리 유 최기가 말하길 "난삼과 복두는 바로 중국의 제도로서 故 상신 민정중이 연경에 갔을 때 구해온 것입니다…… 이번 응방에는 기일이 박두하여 그 기한내에 마련하여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였다.

57) 성균관이나 四學, 또는 향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학업을 닦는 일.

58) 과거를 보러 감.

59) 이순자, 전게서, 20.

60) 『英祖實錄』 第53卷 17年 4月 8日 壬寅, 국역 17권 182-183.
영의정 김재로가 유학은 청금을 입는다는 『경국대전』의 글을 인용하면서 주에 "유학이란 유생이고 청금은 혹 그것이 푸른 옷「청의」인가 의심하기도 하고 옷은 붉은데 옷깃을 푸르게 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었다고 하며 무릇 복색은 청색과 흑색을 함께 쓰지만 흑단령은 홍단령에 비하여 더 중하므로 중한 곳에는 흑단령을 입고 경한 곳에는 홍단령을 입으니, 조신 뿐만 아니라 유사(儒士)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묘(聖廟)에 들어갈 때는 청의를 입고 식당 및 재(齋)에 모일 때에는 홍의를 입었으니 의도한 바가 대체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바로 조종조(朝宗朝)에서 행하던 것이므로 경솔하게 고칠 수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부호군 윤봉구는 명나라 조정의 태학생이 난삼을 입었던 제도를 인용하여 난삼과 복두를 사용하도록 청하였다. …… 임금이 김재로의 의견을 따르도록 명하고 그대로 홍단령을 입게 하였다.

61) 원경하가 아뢰길 명 신종이 하사한 난삼 2벌을 가져와 한벌은 태학에 있었고 다른 한벌은 안동향교에 소장하였는데 태학에 있던 것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고 안동의 것은 아직 완전하다(『銀溪筆錄』 6卷)고 하자 임금이 영남 감영으로 하여금 『대학연의』와 난삼 복두를 올려 바치도록 하였고(『英祖實錄』 64卷 22年 8月 23日 국역 20권 302), 곧 이를 바탕으로 생원 진사의 창방 때에 복두 난삼을 착용하는 제도를 정하였다(『英祖實錄』 64卷 22年 9月 19日 壬子, 국역 20권 320).

62) 『英祖實錄』 第80卷 29年 10月 4日 乙酉, 국역 25권 46.

63) 『春宮通考』, 卷71, 喜禮科制.

64) 배인숙(1988), 26-28.

65) 『園幸 乙卯 整理儀軌』, 華城文武科 親臨試取儀條.

66) 『檀園 金弘道』,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23, 1990.

67) 石宙善, 『衣』, 서울 : 단국대학교출판부, 41, 1985.

68) 『服飾名品圖錄』, 서울 : 고려대학교박물관, 232, 1990.

69)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70) 『國朝五禮儀』卷之一 吉禮.

71) 『英祖實錄』 第55卷 18年 3月 26日 乙酉, 국역 18권 52.

72) 『英祖實錄』 第55卷 18年 4月 13日 壬寅, 국역 18권 67.

73) 梁大淵(편저), 『新編 太學志』, 서울 : 중앙논평신문사, 89-90, 1960.

74) 직령이라 하는 것은 단령과 같은 구조이나 깃만 곧은 깃인 포를 칭한다.

75) 각 행사에서 보이는 직령의 색은 채색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76) 『星湖僿說』, 卷之六, 萬物門.
"난삼이란 옛날에는 없느 것이었다. 『家禮』에는 冠禮에 쓰도록 되어 있으나 대개 풍속을 따른 것이리라. 『宛委餘編』에 이르기를 "후위시대에 말 타는데는 호복이 편리하다 하여 드디어 衣에 횡폭으로 된 치마를 이어서 통옷을 만들게 되었다. 이것을 난삼이라 했는데 지금 소위 公裳이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오랑캐의 옷을 학사와 대부도 모두 좋게 여기고 고치지 않은 것은 풍속이 같아졌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본래 이 제도가 없었는데도 오히려 『가례』의 글을 따라 누구든지 아들을 관례시키게 되면 반드시 중국 저자에서 사오게 되니 이는 너무나 모르는 일이라 하겠다. 만약 주선생이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반드시 풍속에 따라 멀리가서 사다 쓰기까지는 않을 것이다. 까닭에 나는 우리집에서만 쓰는 가례를 만들게 되었다. 아이들 관례시킬 때 맨 처음에는 심의와 복건을, 두 번째는 유건과 청삼을, 세 번째는 입자와 도복을 씌우고 입히도록 하였다."

77) 앞 글, 74.